



제180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소식

2022년 12월 1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위중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현옥 -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이사하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있어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드시고 도와주시는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열성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절에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절 안에 들어가서 기이한 그림 등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나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고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려다가 도리어 크게 야단을 맞고 교회에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큰언니가 전도하였으나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둘째 아이를 낳아 돌아 지날 무렵에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고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은 대문 안으로 누군가가 계속 넣어주던 전도지를 본체만체 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전도지에 저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간신히 남편의 허락을 얻고 큰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987년 5월, 서울에서 방배동에 살 때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으나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두 달쯤 지나서 저는 안양시로 이사를 와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생활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도 안양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의 전도로 함께 교회에 다니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오전에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는데 조금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생활은 순탄치 않아 남편과 헤어지고 동생의 도움으로 용인으로 이사하고 학교 앞에 슈퍼와 분식집을 차려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서 살며 병고에 시달리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 역시 생전의 어머니처럼 무릎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5년 넘게 약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어깨에 염증이 생겨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 무릎과 허리가 아픈 데다가 B형간염 보균자였기에, 기왕 병원에 입원한 김에 MRI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간에서 암 세포가 발견되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3개월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몹시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어깨 수술과 검사와 종양 발견과 수술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 때마다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병이 나을 것이라 확신이 들고 통증과 온갖 두려움이 씻는 듯이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장사하느라 몸이 고단하고 자주 아파서도 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건강과 관련한 보험을 들고 보험료 납부 만기가 지나 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암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어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후 장사하는 일을 접고 큰딸의 권유로 다시 안양으로 이사를 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무릎에 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 무릎에 자주 통증을 느끼지만 참고 웬만한 활동은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시흥시에서 새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여 저는 이곳 시흥에서 둘째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간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악성 종양이 2개가 발견되어 간동맥 색전술로 치료를 받았으나, 갈비뼈 아래 근육으로 전이되어 12월에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병고를 겪던 저를 잊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치료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집에서 우리 교회 GNTC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당회장 목사님이 신유의 기도를 해주시면 ‘아멘’하고 화답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월

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서 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시흥성전에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권사님 등이 여러모로 저를 도와주시며 용기를 북돋워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수술하기가 쉽지 않은 부위라며 걱정하는 의사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분명 수술을 잘 해주실 거예요. 저는 걱정 안해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셔서 지켜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기적처럼 수술이 잘 되고 종양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기도시간마다 간절히 신유기도를 해주신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각 성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해여서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가슴에 석회질로 인한 유방암의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하여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도 암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9일에 검사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간 저에게 의사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원래는 암일 가능성이 70%였는데 너무 두려워할까봐 30%로 줄여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암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의사선생님에게 “그렇지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십니다.”라고 대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에레미야 17:14)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에베소서 1:4~6)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유산의 아픔을 겪은 둘째 딸과 함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간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딸에게 잉태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예쁜 손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딸은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큰 딸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배필을 만나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 구역예배

-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 찬송: 찬송가 310장(새찬송가 591장)

##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로 인한 감사”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창 밖을 가리키며 나직한 목소리로 “하얀 눈으로 덮인 산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설경(雪景)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놓고 시(詩)를 쓴다고 하면서 잠시나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닭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실명(失明)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나누어주어 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정녕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복이라고 하며 “남 보기엔 조금 흉할지 모르겠지만 왜 일목요연하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끝에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구매하여 시골 동네를 찾아다니며 파는 방물장수였습니다. 성혼한 아들과 딸이 셋씩이나 있지만 도회지로 가서 자기 살기에 바쁘는데 어찌까지 챙길 겨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이지만 내 집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명절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학비에 보태쓰라고 돈을 좀 넉넉히 주려면 얼른 한 푼이라도 더 벌여 놓아야 할 텐데 경기가 전과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분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못 드시고 못 입으셔도 오로지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아들에게 육신의 일부를 주어 불편한 몸이지만 자식들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손자손녀들이 찾아오면 학비를 보태주려고 행상에 나선 할머니.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가시나무새처럼 일생을 자식을 위해 애쓰다가 마지막 애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내 앞에 계신 ‘가시나무 할머니’는 바로 성인(聖人)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난 후로 범사(凡事)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면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할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 ③ ‘감사(感謝)가 준 기적(奇跡)’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엘리아스 쉘먼(Warner E. Sallman)’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는 77년(1892.4.40-1968.5.25)을 살았으며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초상화(Head of Christ)를 그렸습니다. 1940년도 작품은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으며, 5억 개 이상의 복사본이 팔렸습니다. 1994년에 뉴욕 타임스는 ‘워너 쉘먼’을 금세기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술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더 유명합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쉘먼’에게 “당신이 걸린 병은 임파선결핵입니다.”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쉘먼’의 마음은 낙심되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쉘먼’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덤으로 주신 3개월을 멋지게 살아가면 어떨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천금 같은 3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더 살게끔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시다.”

‘쉘먼’은 아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였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모든 일과 모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는 마음과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생활화한 ‘쉘먼’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로부터 선고받고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결핵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사인 ‘존 헨리’박사는 너무나 놀라면서 묻기를 “도대체 무슨 약을 복용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쉘먼’은 의사에게 대답하기를 “처방하신 약 외의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구태여 다른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하며 이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이에 따르는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게 되는 것이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놀라고 감격합니다. 신령한 지식과 체험이 더하여 갈수록 그 놀라움과 감격이 깊고 풍성하여 집니다. 이로 말미암는 감사는 참으로 숭고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변화로 인한 감사를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적 변화로 인한 감사입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의미의 호칭이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적에 등록이 되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체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섬기고 사랑할 주님’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란 ① 모든 종교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며 대동소이 하지만 자신은 그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여서 ② 혹은 교회 활동이 여러모로 즐겁고 유익하여서 ③ 혹은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대체로 감사에 관한 예화 중에는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설교는 이런 예화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① ‘선택된 축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 ‘필립 하츠’박사는 “이 세상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을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 계산해 본 내용입니다.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100명으로 줄여서 한 마을에 모았는데 57명이 아시아인,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이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52명이 남자이고, 48명이 여자였습니다. 70명은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명만 자기 집에 살고, 80명은 집도 없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100명 가운데 70명은 문맹이고, 그 중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한 명은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증오의 갈등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꺼지지 않는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 ② 어느 신문기자가 쓴 ‘가시나무 할머니’라는 글입니다.

아일랜드 전설에 ‘가시나무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동지를 나와 평생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주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일생에 한 번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시에 가슴을 찌르고 죽습니다. 오래 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양시(市) 쪽으로 취재하러 갔다가 열차를 타고 신문사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목례를 하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참 있다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물으려고 고개를 돌렸더니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엇을 간구하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라고

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되어서 ④ 혹은 여타의 사정으로 부득이 하여 라는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인 안디옥에서 약 일 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적절한 호칭이므로 교회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니 바울이 각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당치 않는 이유로 당국에 고소하였습니다. 바울은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고소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참관하게 된 아그립바왕이 바울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전개하면서 아그립바왕에게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말하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라고 바울의 진술을 급히 가로막았습니다. 아그립바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놀랍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벌써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특징이 뚜렷하였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곧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여타의 모든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존재의 바탕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표명하는 감사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적 변화로 인한 감사'가 근원적이고 으뜸이 되는 감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적 변화로 인한 감사'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다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따르게 되는 각종 변화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전에 없던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육신의 식욕처럼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렘 15:16)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②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알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 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찬송 가사에 깊이 공감합니다.

③ 찬송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찬송하려는 욕구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영혼 깊이에서 우러나는 욕구입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시 119:164)라고 말했습니다.

④ 전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전도하려는 욕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⑤ 주의 일을 위하여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사명을 수행하려면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헌금과 헌신 봉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드림과 헌신봉사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에게서 이러한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은 성령께서 이런 욕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⑥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열매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 밖의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혈연이나 각종사회의 조직과 제도를 통하여 형성되는 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경험합니다.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인간관계와 영적인 인간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이며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변화의 의미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삶의 원칙·목적·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는 만사에 적용해야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②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중대사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③ "그러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소원이요 목적이여야 합니다.

④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선과 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부합되게 행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원칙·목적·동기가 확실합니다. 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형용하고 표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 순위에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 주를 기쁘시게 하는 /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합당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고 목적이며 동기입니다.

**넷째,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면서 천국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써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감할 때에 이르러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종일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실재함을 강조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을 천국 소망으로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②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부활하고 변화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며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에 필적할 것은 없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③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는 칭찬과 상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쓴 자, 전도한 자,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실제의 체험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이에 따르는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게 되는 것이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놀라고 감격합니다. 신령한 지식과 체험이 더하여 갈수록 그 놀라움과 감격이 깊고 풍성하여집니다. 이로 말미암는 감사는 참으로 송고한 감사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과연 이러한 변화로 인한 감격이 있는지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 보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적 변화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따르는 각종 변화들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새로운 욕구,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삶의 원칙·목적·동기, 새로운 소망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 부여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에 송고하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부가하여 줍니다. 이로 인한 감격과 감사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로 인한 감격과 감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분량이 엄청나서 항상 마음을 채우며 고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금고에 두거나 진열장 안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누리며 표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감격과 감사가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는 함수관계입니다. 참된 행복의 크기는 송고한 감사의 분량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명부가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그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제2차 학술대회 개최

##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본교회에서 열려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이사장 조용목 목사님·원장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의 제2차 학술대회가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5일(금) 오후 우리 교회 아가페성전에서 열려,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일치주의 등 비성경적 신학과 주의 주장을 철저히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사역자 양성과 한국교회의 건실한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학술대회에 앞서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의 사회로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의 기도,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최대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대신대 총장)의 설교, 쌍투스 미션콰이어(남서울 은혜교회)의 특송, 합심기도 순서로 예배를 드렸다.

최대해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참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최 목사님은 “성도로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성과 완전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교제

하는 필수요건이다. 복음은 대화로 풀어가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목회자는 자기 의와 인간적인 허영심으로 사역해서는 안된다.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빠진 일치와 화평은 복음이 아니다.”고 역설하고, 복음사역자와 신학자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셨다.

이어진 합심기도 순서에서 임성택 전 강서대 총장, 안명준 평택대 명예교수, 이광희 평택대 교수가 각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기도하였다.

조용목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한림원 원장 정상운 목사님은 대회 개최사에서 “WCC는 회기가 거듭되면서 본래의 목적과 성경에서 벗어나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외형적인 기구적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며 카톨릭과의 연대뿐 아니라 여러 타종교와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WCC의 반성경적 행보를 바르게 분별하고 대처함으로써, 종교다원

주의가 난무하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국교회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과 성경으로 재무장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한림원 이사장이신 조용목 목사님께서 신입회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시며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다.

한림원 총무 박응규 박사(아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와 논평의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선 박사(안양대 교수)는 ‘WCC 제11차 총회 주제에 대한 복음주의 시각에서의 분석과 비판’이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WCC 총회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영혼구원은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어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가 ‘WCC 제11차 칼수루에 총회의 선교신학 비평’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번 WCC 총회의 메시지는 성경과 이데올로기를 섞어서 만든 불순한 혼합 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WCC 제11차 총회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WCC 활동을 비판하면서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기관들과는 다르게 선교 기관과 단체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선교활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의 종합논평과 질의응답 순서에 이어서 오덕교 목사님(전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의 폐회기도로 성령 충만했던 이날 학술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教翰林院, KAC)은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

독교적 가치 실현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를 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과 취지로 창립되었다.

지난 5월 20일(금) 우리 교회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21세기 상황과 한국교회,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한림원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 ◆ 한국기독교한림원 정회원 ◆

- 김일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김선배 박사(침신대 총장),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박응규 박사(아신대 교수),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 안명준 박사(평택대 명예교수),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이억주 박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은선 박사(안양대 교수), 오덕교 박사(전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 정상운 박사(전 성결대 총장), 최대해 박사(대신대 총장)

## 예수교대한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가지골길 25(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 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눈동로14번길 12-14(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충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